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포스터 전시

‘100 Film 100 Posters X 10’ 개최… 올해 10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올해 ‘100 Films 100 Posters’ 10년을 기념해 ‘100 Films 100 Posters X 10’ 개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100 Films 100 Posters X 10’은 기존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진행 방식에서 공간과 기간을 넓게 확장해 전주만의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이자 특별전 형식으로 개최된다.

우선,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매해 진행했던 방식대로 ‘제10회 100 Films 100 Posters 전시’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중 100편을 선정,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각자만의 포스터를 만들어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100 Films 100 Posters’ 10년을 기념해 지난 성과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아카이브 전시 ‘1000 포스터숍: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 ‘발췌된 한글들: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 ‘그린 라이브러리-그린 포스터 컬렉션: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 ‘인덱스 라운지: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 등 5개의 전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먼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0 Films 100 Poster 기획 전시를 통해 출품된 약 1,000종의 포스터를 전시·판매하는 공간인 ‘1000 포스터숍: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을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운영한다.

다음으로 역대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포스터 중에서 주목할 만한 조형을 보여 준 ‘한글’을 추출, 컬렉션 형태로 배열하는 ‘발췌된 한글들: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은 완판본문화관 야외마당에서, 10년 동안 ‘100 Films 100 Posters’ 기획 전시를 통해 제작된 영화 포스터 중 ‘초록’이 테마가 된 포스터를 선별해 재구성한 쇼케이스 전시인 ‘그린 라이브러리-그린 포스터 컬렉션: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 전시’는 전주시립인후도서관에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0회를 맞이한 100 Films 100 Posters를 정보그래픽 기반으로 정리·회고하는 전시이자 디자이너, 감독, 관객 등이 모이는 친교의 장소, 즉 라운지로서 환대의 공간으로도 운영되는 ‘인덱스 라운지: 100 Films 100 Posters 2015-2024’는 영화의거리에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전시와 함께 역대 ‘100 Films 100 Posters’ 전시에 참여했던 디자이너들을 초청, 행사의 의미와 기록을 되짚는 디자이너 토크와 간담회 및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전공생,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포스터 만들기 워크숍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모든 ‘100 Films 100 Posters X 10’ 전시는 무료(일부 이벤트는 유료)로 관람 가능하다.

‘100 Films 100 Posters X 10’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일 막이 오른다.

/장은성 기자

‘생명의 연가’ 미디어 전시 기념 콘서트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야외무대서 27일 진행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함파우길 65-16) 콩에서는 오는 27일 5시부터 ‘생명의 연가’ 실감미디어 전시를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이날 콘서트는 ‘생명의 연가’ 전시의 사운드 영상을 제작, 감독한 가수 하림이 생명의 여행이란 테마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미술관 ‘콩’을 배경으로 기타, 마림바, 퍼커션 등 다채로운 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이 낭만적인 봄날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에 앞서 오후 3시에는 하림 진행으로 Play남원 아카데미가 ‘생명 칸타타’란 주제로 김병종(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최재천(제1대 국립생태원장, 하버드대학교 생물학 박사) 교수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미술관 관계자는 콘서트와 함께 ‘생명의 연가’,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2024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시·군 공동기획) 전시도 즐길 수 있는 이 날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추억과 편안한 휴식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술관 ‘콩’은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운영 문의는 전화(063-620-5716)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종이로 가득찬 미니어처 세계여행

전북도립미술관, ‘Paper+Jam’ 展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4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128일간 종이로 떠나는 세계여행 ‘Paper+Jam’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들이 종이(paper)로 가득찬(jam) 미니어처 세계를 여행하는 컨셉의 전시로, 어린이들이 여행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입국장과 출국장, 여권 발급과 스탬프 찍기 등 새로운 세계와 문화를 경험하는 여행이라는 체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미술관에서 소개된 적이 없는 페이퍼 아트 작품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원시 지구를 상징하는 아마존의 밀림의 터널부터 시작된 여행은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 아프리카 초원을 거쳐 스핑크스와 고대의 상형문자를 만날 수 있는 이집트로 향한다. 커다란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영국의 ‘빅벤’과 멕시코 전통 솜브레로 모자를 쓴 선인장 인형들을 지나 거대한 에펠탑이 반겨주는 프랑스를 지나면 북극곰과 트리들, 펭귄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극지방이 나타난다. 러시아의 성바실리 대성당 앞의 마트료시카 인형들과 인사를 나누고 일본의 어린이날 전통놀이 ‘고이노보리(모형 잉어 날리기)’를 지나면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우리를 반겨준다. 백설공주 성으로 유명한 독일의 ‘노이슈반슈타인성’을 지나 미래의 우주여행을 함께 할 우주인과 달 탐사선나로호가 여행의 끝을 알린다.

한편 이번 전시의 작가인 이지희는 페이퍼 아티스트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디자인 회사에서 광고, 정책 홍보, 기업 PR 등을 맡아 제작 팀장으로 일하다 독립한 뒤 본격적으로 TV CF, 기업 콜라보, 전시, 디스플레이, 상품 개발, 스톱모션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페이퍼 아트를 구현하며 활동 중이다.

전시와 연계해 각 나라의 스탬프를 나만의 여권에 찍어보는 체험과 각 나라의 건축물과 문화적 상징물을 채색해 완성하는 팝업카드 만들기, 두루마리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는 롤링페이퍼 그림 그리기 등의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장 공간이 다소 비좁기 때문에 단체 관람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전시 및 단체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a.go.kr) 및 인스타그램(jeonbuk_museumofart), 페이스북(jmameseum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체험 문의는 전화(063-290-6872, 688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직장인들에게 전하는 유쾌한 위로 ‘샐러리맨칸타타’

전주시립합창단 기획공연 5월 3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개최

전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김철)의 기획공연 ‘샐러리맨칸타타’가 오는 5월 31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다.

24일 전주시립합창단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샐러리맨칸타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취업준비생 시절의 고단함부터 첫 출근의 설렘, 결혼, 전쟁 같은 육아와 회사생활을 견디며 나이가 들어가는 일상적이지만 굵직한 이야기들을 담담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객에게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다.

‘칸타타’(Cantata)는 독창·중창·합창과 기악 반주로 이뤄진 성악곡이란 뜻의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다’라는 뜻의 ‘Cantare’에서 유래했다.

안효영 작곡, 윤미현 작사의 ‘샐러리맨칸타타’는 2018년 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의 위촉으로 제작됐으며, 이후 성남시립합창단, 원주시립합창단 등에 의해 재차 연주되며 시대를 반영하고 청중들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음악적 탁월함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피아노 한 대의 반주가 전부였던 기존의 작품에 비해, 전주시립합창단이 이번에 선보일 ‘샐러리맨칸타타’는 올해 안효영 작곡가가 두 대의 피아노, 팀파니 연주자를 포함한 6명의 타악기 연주자들을 위해 오케스트레이션을 한 작품으로 한층 몸집이 커졌다. 더불어 정경선의 각색과 연출, 전주시립극단 배우들과의 협업으로 연극적인 요소를 더해 관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과 감동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샐러리맨칸타타’를 작곡한 안효명 작곡가는 “‘우리의 일상을 노래하는 칸타타가 있던가’라는 물음에서 작품이 시작됐다며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45분 남짓한 음악이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현실이 훨씬 더 무겁고 영화 같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미현 작가는 매일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평범한 샐러리맨들, 주머니에 사표를 가지고 다니지만 사표는 주머니 속 사표일 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어느덧 세월 속에 묻히게 된 사표에 대해 말하며, “사표를 낼 수 없는 용기 또한 아주 큰 용기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1만원으로, 나루컬처에서 예매 가능하다. 특별히 직장인은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30%할인 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여행상품 ‘태권스테이’ 판매 개시

“꼭 한번 가봐야지 하고 기다렸어요(se2**), 아이가 또 가고 싶다 난리였는데 드디어 오픈했네요(bor***)”. 23일, 태권스테이 판매 사이트 문의창에 달린 내용이다. “올해는 언제부터 운영하나요?”라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태권스테이가 판매를 개시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지난해 매진 사례를 일으킨 ‘태권도 여행상품·태권스테이’를 5월부터 운영한다. 2024 태권스테이 이용 요금은 1인 5만5,000원으로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 전망대 모노레일 탑승, 숙박과 식사, 태권도복 대여, 콘텐츠 참여, 전북 투어패스권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획기적인 가격이다. 여행자 보험은 별도 추가로 구성하여 선택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다.

5월은 어린이날 연휴를 비롯해 주말에 한 해 운영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태권스테이’ 검색 후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티몬과 비빕고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태권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태권도원에 머물며 다양한 태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2번, 3번뿐 아니라 6번, 7번 참가하는 등 재구매율이 높은 인기 상품이다. 참가자 전원이 태권도복을 입고 진행하는 태권스테이에서는 태권도 체험과 함께 어린이날 이벤트, 레크리에이션, 태권도 띠 만들기 등 체험 콘텐츠를 매주 다르게 운영한다. 이와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해발 600미터의 태권도원 전망대 방문도 가능하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에는 공연과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원이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태권스테이 참가자들에게는 전북투어패스권을 지급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이면서도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스포츠 관광 명소로 온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태권스테이는 태권도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서 올해도 흥행을 이어가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 태권스테이 힐링태권체조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3 태권스테이는 연인원 2만여 명이 참가하며 판매 사이트에서 5점 만점에 이용자 평점 4.8점을 기록하는 등 매진 사례를 이어간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온 가족 함께하는 무형유산 어린이 공연 진행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오는 5월 4일과 7월 27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형유산 어린이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국악뮤지컬집단 ‘창작하는 타루’가 출연하는 ‘벨벳토끼’는 애착 토끼인형이 진짜가 되어가면서 나누게 되는 우정·사랑·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아픔을 치유해 주는 작품이다.

이어 판소리 수궁가를 새롭게 각색해 원작과는 다른 통쾌한 결말을 보여주는 창작국악그룹 ‘그림(The林)’의 동화콘서트 ‘자라는 자라’는 수중 동물과 육지 동물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라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한 편의 노래하는 그림책을 보는듯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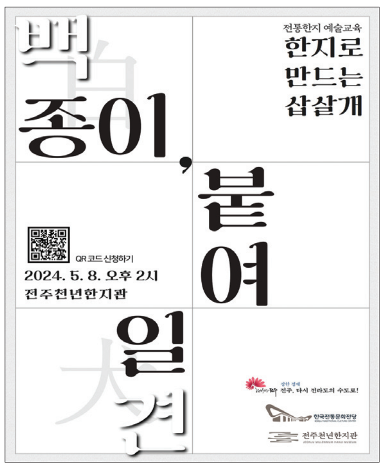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전당, ‘백(白)종이 붙여일견(犬)’ 교육생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통한지 예술교육의 첫 번째 워크숍 ‘백(白)종이 붙여일견(犬), 한지로 만드는 삽살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4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창작활동을 통해 한지의 예술적 소양을 키우고 다양한 쓰임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해 기획, 모두 4회에 걸쳐 워크숍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5월 8일 진행되는 첫 번째 워크숍은 ‘백종이 붙여일견’을 주제로 줌치기법으로 제조된 한지를 알아보고 줌치한지를 활용한 오브제를 만들어 보는 등 한지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5월 4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을 통해 2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장은성 기자



신재효 판소리 대잔치 27일 고창서 개최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하는 ‘신재효 판소리 대잔치’가 오는 27일 신재효판소리공원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신재효 판소리 대잔치’는 동리 신재효 선생을 기억하고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조성된 신재효판소리공원에서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선보이고자 마련되었다.

방송인 김성환, 김지선의 사회로 명창 박양덕, 송재영의 판소리 심청가와 남도민요를 비롯하여 동리창극단의 단막창극, 국악아카펠리그룹 토리스, 국악합창단 K-판, 동리어린이예술단 목담애, 아트컴퍼니 고풍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완주풍류학교 상설공연 시작

완주군 소양면 한옥을 벗 삼아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24일 완주군은 완주풍류학교(교장 김종덕)가 2024년 상설공연 ‘신명나는 국악한마당’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60분 가량 진행된다. 전통문화예술인 국악을 기본 바탕으로 서양음악, 미술, 대중가요 등의 요소를 가미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남녀노소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27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첫 번째 개막공연은 야외 특별기획으로 준비해 90분간 진행된다.

완주군 홍보대사인 세계 최초 피겨 플루티스트 윤수연의 공연과 농악 등 각종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출연자들이 관객을 만난다.

풍류학교는 상설공연 이외에도 유아 무료 국악 체험, 전통예술 강습, 찾아가는 공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은 “국악은 추임새를 넣어가며 함께 호흡하다 보면 더없이 친근해 질 수 있는 장르다”며 “새싹의 싱그러움과 화려하게 핀 철쭉꽃이 가득한 자연 속 한옥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